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68.1%

“김기식 외유 논란·재활용쓰레기 수거 혼란 등 영향” 민 4주 연속 50%대... 한국 20.8%·바른미래 5.7%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60%대 후반을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2~6일 전국 성인 2천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8.1%로 전주 대비 1.4%포인트(p) 내렸다.

‘잘 못 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0.1%p 오른 25.7%로 집계됐고, ‘모름·무응답’ 답변은 1.3%p 증가한 6.2%였다.

지난주 주중 집계(2~4일)에서 69.4%를 기록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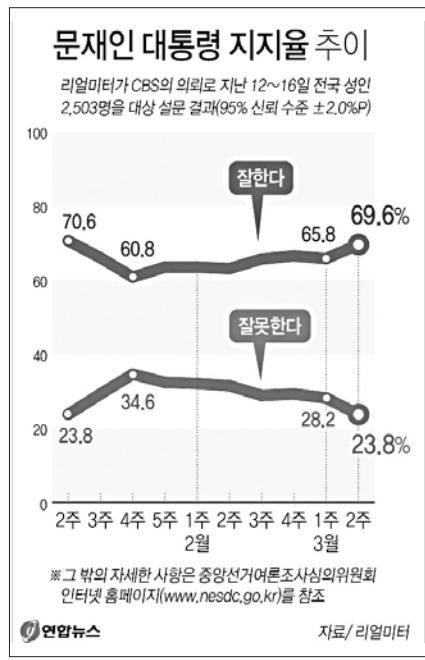
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의원 시절 ‘외유 논란’이 퍼진 5일 67.3%로 내려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던 6일에도 66.2%로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김 원장의 외유 논란에 더해 재활용 쓰레기 수거 혼란, 정시모집 확대와 관련한 입시정책 논란 보도가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2.4%·5.4%p ↓), 대전·충청·세종(68.0%·4.9%p ↓), 부산·경남·울산(59.0%·3.8%p ↓)에서 내렸고 경기·인천(72.5%·1.8%p ↑)에선 올랐다.

연령별로는 20대(74.8%·3.2%p ↓),



50대(62.5%·2.4%p ↓), 60대 이상(53.2%·2.4%p ↓), 40대(76.4%·1.4%p ↓)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반면 30대(79.6%·3.1%p ↑)에서는 상승했다.

정당 지지율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한 주 전보다 0.2%p 내린 51.1%로 1위를 지켰다.

민주당은 4주 연속 50%대 초반 지지율을 유지했다. 다만 주 후반에는 40%대로 떨어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20.8%(0.1%p ↑)의 지지율을 얻어 지난해 5월 19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3주 연속 20%대를 유지했다.

바른미래당은 1.1%p 내린 5.7%로 창당 후 처음으로 5%대로 하락했다.

공등교섭단체를 구성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각각 4.5%(0.7%p ↓), 2.6%(0.2%p ↑)의 지지율을 얻었다.

평화당의 지지율은 5주 연속 2%대의 약세를 보였다.

/박은진 기자 pej269400@

야 3당 ‘갑질 논란’ 김기식 임명철회 촉구 “부패한 시민운동가...직접 사죄하고 검찰 수사도 필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9일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수차례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임명철회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야3당은 특히 김 원장이 전날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외출장 논란에 대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출장비를 제공받은 기관에 혜택을 준 바 없다고 부인한 점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장이) 갑질 의혹을 둘러싼 비난에 대해 ‘소신과 원칙에 따라 관련 기관의 오해를 살만한 혜택을 준 사실이 없다’는 황당무계한 변명을 했다”며 “지나가던 소도 웃게 할 블랙코미디”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원장의 해명은 국민적 비난에 불을 붙이는 자기변명에 불과하다”면서 “비겁하게 뒤에 숨어 기자들에게 변명 자료나 배포하지 말고,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정재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김 원장이 입장문 하나 던지니 친절하게 상황 종료까지 선언해 줬다”면서 “앞으로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이 제공한 ‘황제여행’을 마음껏 즐겨도 장관이 될 수 있고, 여비서 등

반은 옵션이 아니라 기본이 됐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참여연대 출신의 김 원장은 의원 시절 피감기관과 민간은행의 돈으로 외유를 다녀온 부패한 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을 당장 해임하고 검찰은 이 사람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당 김형구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원장의 사퇴가 우선돼야 한다”며 “로비는 받았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부터 청산하고, 자본시장의 최후 보루인 금융원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의 기류도 부정적으로 바뀌는 모양새다.

정의당은 앞서 지난해 문재인 정부 조각 당시 사퇴를 공개 촉구한 공직 후보자들이 연달아 낙마해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말이 유행한 만큼 이번에도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됐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원장에 대해 “날 선 개혁의 칼을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흠결을 안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역 24년 국민 50% “형량부족”

전국 성인 500명 설문 결과

국민 10명 중 5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는데 대해 ‘형량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6일 CBS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4.4% 포인트)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47.8%, ‘과하다’는 응답은 28.9%로 각각 나타났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11.3%에 그쳤다.

응답자가 선택한 세부 형량 비율을 보면 ‘무기징역’ 29.3%, ‘감찰 구형과 같은 징역 30년’ 18.5%, ‘무죄’ 14.8%, ‘20년 초과 29년 이하’ 11.3%, ‘최소실 씨 형량과 같은 20년’ 8.1%, ‘최소실 씨 형량보다 낮은 20년 미만’ 6.0%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인천, 대전·충청·세종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대구·경북에서는 과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산·경남·울산과 광주·전라에서는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과 과하다는 응답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공전 장기화 4월국회 앞이 안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정례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 정의의 노회찬 원내대표.

대정부 질문도 불투명... 국민투표법 개정 ‘빨간불’

4월 임시국회 공전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여야는 9일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쟁점법안 처리 및 대정부 질문 등 의사 일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견만 노출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조찬과 오찬을 함께하며 릴레이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지

만, 쟁점마다 오히려 갈등의 골만 키운 채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돌아섰다.

이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 예산 시정연설이 무산됐고 10일부터 사흘간 열기로 잠정 합의한 대정부 질문 일정 역시 잡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가 2주차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계제’의 형국이다.

임시국회 공전이 장기화하면서 이번 주까지 개정휴업 상태를 이어갈 경우 당장 4월 20일이 마지노선인 국민투표법 개정 빨간 불이 들어오며 최대 현안인 개헌이 또 다른 걸림돌에 직면하게 된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추경 처리와 민생 입법도 줄줄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는 벼랑 끝 대치만 이어가는 형국이다.

남북정상회담 D-18, 일정 논의 분주

통일부 “실무회담 예정”...문체부 “문화교류 구체화”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부처가 일정과 분야별 교류 논의 등으로 분주하다.

통일부는 9일 “이번 주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이 한두 차례 더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통신(실무회담)하고 경호·의전·보도(실무회담) 부분도 조금 협의할 부분이 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 5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당일 세부일정 등과 관련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을 가진 데 이어 7일에는 정상 간 핫라인 구축의 기술적 준비 등을 위한 통신 실무회담을 했다.

남북은 이어 18일께 고위급회담을 열고 27일로 예정된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최

종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급회담에서는 의제를 구체화하고 정상회담 전 갖기로 한 정상 간 핫라인 첫 통화 시점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남북 정상회담 이후 문화제 발굴, 국어사전 편찬, 문학 교류 등 중단됐던 남북 문화교류를 재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황성은 문체부 대변인은 이날 세종시 문체부 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평양 방문 때 김일국 체육상, 박춘남 문화상, 안동춘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위원장 등과 만나 문화·체육 교류를 재개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며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실무진 간의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남도민일보 지역기자 모집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도민일보가 능력있는
전남 지역주재기자를 모집합니다.

무안 · 담양 · 영광 · 장흥 · 강진 · 화순 · 신안
구례 · 영암군 · 목포 · 순천시는 지원마감

전화문의 : 062)227-0000
팩 스 : 062)227-0084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33-4) 소석빌딩 5층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국토의 싹틔줄
생각을 살립니다